

6. 2025 GCS 6기 Team 조아유 Scrum (04092025)

Daily snippet @04/07/2025

1. what(무엇을?)

▼ 영현

어제 벤치마킹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는데, 그러다 갑자기 캐치테이블이 나와 가설을 세워서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간 발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무려 8시간동안!!!

▼ 은아

아이디어 도출, 지도교수 면담
(5배 뛰어넘는 아이템을 데스크 서치를 통해서 진행한 후, 가설검증은 짧게)
시장 조사 (ios 앱 조사, 스타트업 조사)

▼ 제명

지도 교수님 면담
→ 아이디어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, 돈을 잘 벌 수 있는가? 라고 생각해본 아닐 수 있다. 그리고 가설 검증 및 프로토타입 제작 등등에 대해 개념치 말고,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 될 놈을 찾아서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해라.

문제 정의 단계에서 한 가지 꽃히는 것들에 대해 딥다이브해보고 가능성 판단하기

2. why(왜 했는지?)

▼ 영현

중간발표를 진짜 잘하고 싶고, 여러가지 가설로 서비스를 도출하기보다는 search를 통해 우리가 모두 이게 될놈이다! 판단하여 가설검증으로 바로 넘어가기위해 열심히 벤치마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!

▼ 은아

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
인사이트를 얻기 위해

▼ 제명

지도 교수님 면담은 먼저 교수님께서 걸어주셨지만, 안그래도 신청 예정이었음. 문제 정의 단계에서 막힌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함.

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리서치를 진행해보았으나, 잘 안찾아져서 계속 계속 진행함.

3. highlight(잘된 것?)

▼ 영현

일단 무식하게 많은 것을 벤치마킹한다고 좋은것이 나오는데 아니고 좋은 자료와 좋은 수치, 좋은 지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걸 배우게 됐고, 우리 팀원 모두 밥 먹는 속도가 비슷한데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늦춰진다는것을 배워서 좋았음

▼ 은아

잘된 것...?

많은 시간동안 다들 잘 버틴 것

▼ 제명

교수님 면담을 통해 문제 정의에 대한 감을 잡은 부분

4. Lowlight(잘 안된 것?)

▼ 영현

결론적으로 아이디어가 안나왔음, 그리고 또 각자 따로 논 느낌이 없지않아보여서 뭔가 일을 할 때 대화가 좀 더 필요해보임 어느 방향으로 할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다같이 합심해서 하는게 좋을 거 같음 우리 같은 주제로 같이 나아가보자 !! 파이팅!!

▼ 은아

획기적인 아이디어(사업아이템)를 찾지 못한 것

(아이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... 계속해서.... 진득하니 앉아서 찾아야 할 듯)

너무 차별성..에... 집중하지 않았나

▼ 제명

생각의 흐름이 계속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다보니 너무 뻘해지고, 팀원 3명이 확 집중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.

5. Next Focus(그래서 내일 뭐를 더 신경쓸 것인가?)

▼ 영현

배우게된 벤치마킹 방법으로 집에가서 진짜 죽을 때 까지 찾아볼거임,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와 이걸 되겠다! 라고생각할수 있는 자료를 찾고 해외에선 있지만 한국엔 없

는걸 꼭 찾을거임! 은아야 신경쓰지말고 놀러다녀오고 형아두 금요일에 시신경쓰지
말고 회사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! 모두 오늘 다들 스ㄱ고했고 잘 씻고 자고 내일도
씩씩하고 의사소통하면서 파이팅 합시다!! 모두 사랑해요!!!!💕

▼ 은아

시장 조사 (ios 앱 조사, 스타트업 조사) 를 조금 더 해서, 진득하게 해서
조금 더 찾고 서치하자.....

▼ 제명

벤치마킹 아이디어 탐색